

## 2011.08.08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8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「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## □ 집중호우에 따른 농산물 수급상황 점검 및 대응 강화

- 최근의 집중호우와 관련하여, 피해규모가 크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, 출하지연 등으로 단기적으로 가격불안이 지속될 소지가 큼.
  - 병해충 방제 및 생육촉진 등 안정생산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, 비축물량 방출을 통한 공급 확대 추진
  - 고랭지배추 주산지에 공동방제단(5개)을 구성하여 취약농가 병해 방제를 지원하고, 과수는 주산지 기술지원단을 운영(8개반, 21명)
  - 단기적인 배추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**봄배추 비축물량 방출 및 계약재배 물량의 도매시장 출하확대** 추진
- 배추, 돼지고기 등 현재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
  - **(배추)** 폭염 등에 의한 가격불안시 계약물량 출하조절을 강화하고, **8~9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단기수매·저장** 추진
    - ※ 가을배추는 평년수준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재배면적 확대를 적극 유도
  - **(돼지고기)** 냉장삼겹살 공급확대, 산지돼지 가격하락 등으로 하락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, 아외용 수요가 많은 **휴가철 공급안정** 노력
    - ※ 유통공사의 가격안정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유통업체에 공급하고, 향후 가격 불안시 **냉장육 할당관세기간(9월말) 연장** 등 검토

## □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공급기반 강화

- **농업관측을 강화**하는 한편, 농산물 공급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요

품목에 대한 비축·저장을 강화하는 등 단기적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유도

※ **고랭지배추부터 「기상 시나리오별 생산량 예측모형」 시범운영 실시**

- **국제곡물가격에 대한 조달시스템을 강화**하여 안정적인 식량자원 공급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
  - 현재 정부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제곡물회사를 설립하고, 이를 통해 밀, 옥수수, 콩 등 주요 곡물 400만톤을 도입할 예정
- 한편, 국내농업기반 강화를 위해 **유휴농지에 밀, 조사료 재배** 등을 유휴농지 활용도를 제고하고, **다수확·조기수확 품종 개발**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

## □ 외식비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강화

- **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** 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, 지정심사지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심사과정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정절차의 공정성·투명성 강화
  - ※ 지정기준: 가격인하 또는 동결 업소(주위 평균 가격보다 10%~20% 저렴한 업소 등),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적극 호응 업소(옥외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시행업소 등), 가격은 동일하나 시설·서비스가 월등한 업소 등
- 지정규모는 **업종별 관내 업소 3% 내외로 지정**하고, 반기별로 모범업소 적합 여부 재심사 및 필요시 수시로 재심사
  - ※ 금년도는 **8~9월중 일제정비, 연말에 모범업소 지정·운영** 성과 분석
  - ※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업소,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수시 재심사
-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“물가안정 모범업소”에 대해서는, **대출금리 우대,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, 정책자금 우선 대출, 자영업컨설팅 우대** 등을 지원
  - 지자체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 지원, 모범업소 표찰부착, 위생업소 제공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SNS, 전용어플 등을 통해 홍보 지원